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성대히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여 기념연설을 하시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맞으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10월 1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전람회장에는 자위적국방건설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어 우리 조국의 영원무궁한 안녕과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갈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마련해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대한 열화같은 감사와 흠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원수님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막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 무비의 담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불가항력의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주시고 당의 위업, 부국강병의 대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있게 인도하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개막식에 앞서 종합군악대의 특색있는 레식이 진행되었다.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혁명군악에 맞추어 각이한 대형변화로 《10.10.》수자와 당마크를 새기는 레식으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이어 인민군전투원들의 격술시범출연이 있었다.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멸치의 투지와 용맹을 키워온 군인들은 전투동작과 조법들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환희로운 10월의 하늘가에 붉은 당기를 휘날리며 최우수수각하산병이 강하기교를 펼치었다.



개막식장 상공에서는 전투비행사들의 기교비행이 진행되었다.

장쾌한 폭음을 울리며 초저공비행, 수직급상승기교, 쌍기반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중전투비행동작들을 능숙히 수행하면서 평시에 련마한 비행술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비행대를 향해 관중들은 경탄의 환성을 연방 터치었다.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 공로자들과 함께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열광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박정천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개

막사를 하였다.

전람회개막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주악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기념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렬적인 박수를 터쳐올리면서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개막식에서는 나라의 국방력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한 성인들에 대한 표창수여가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과 김일성상,

김정일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낮) 및 국기훈장 제1급,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직접 수여 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로 수훈자들을 축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전람회장을 돌아보시었다.

전람회장에는 최근 5년간 개발생산된 각종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위주로 강력해진 조선의 국방력이 집결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의 넓이 퍼져처럼 흐르고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

계급, 천만인민의 순결이 높워는 생명체와도 같은 하나하나의 무장장비들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보시며 세계최강의 자위적국방력을 억척으로 다지는 민족사적성업에 바쳐진 조선로동당의 붉은 국방전사들의 열렬한 애국충정을 다시금 평가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국방발전전람회를 기념하여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과 뜻깊은 사진을 찍으신데 이어 기교비행 및 강하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락하산병, 전투비행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화복을 남기시었다.

부국강병의 전투적령정에서 고락을 같이하는 령도자와 전사들사이의 뜨겁고도 친근한 정이 차넘치는 전람회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참가자들의 크나큰 긍지와 영예, 행복감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강국의 존엄과 기상이 력연한 무적의 병기들에 깃든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화선령도

사적에 대한 이야기를 격정속에 나누며 강철의 신념과 담력,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으로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존엄높은 강국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경모심을 금치 못하였다.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우리 인민의 건인불발의 력사적진군에 필승의 신심과 활력을 더해주고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공업의 현대화목표달성을 위해 결사분투하는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기념연설

주제 110 (2021)년 10월 11일

동지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을 직접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선진성과 현대성, 영웅성이 응축된 국방발전전람회에 참가한 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오늘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올해의 우리 당창건기념일을 더욱 뜻깊게 경축하고 이채롭게 빛내이게 하고있습니다.

이번 국방발전전람회는 그 명칭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불패의 자위의 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와 령도력, 실천적집행력을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하고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일대 축전입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인 국방정책과 그 빛나는 생활력이 집대성된 오늘의 성대한 전람회는 대규모열병식에 못지 않게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인 국력시위로 됩니다.

동지들!
변화된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 그리고 세계적판도에서의 군사력의 급속한 변화의 요구에 상응하여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 더욱 강하고 절대적인 힘을 키워야 할 막중한 력사적사명을 걸머지고 우리 당이 지난 5년세월 필연코 단행해야 했던 사생결단의 국방공업혁명의 길, 미지의 생ن길들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엄혹한 시련의 고비들과 가슴뿌듯한 희열의 순간들이 갈피마다에 새겨져있는 지난 5년간의 국방력발전 로정은 그 한걸음한걸음이 당과 조국, 인민들과 후대들앞에 더없이 땀땀하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보람넘친 혁명의 길, 애국의 길, 위대한 승리의 려정이었습니다.

여기 전람회장에 즐비하게 늘어선 지난 5년간 이루어낸 무장장비들을 무심히 볼수가 없습니다.

살어보고 만져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한없는 긍지와 자부나 커지는 소중한 우리의것들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것을 발악적으로 두려워하는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더욱 혹독한 고생과 시련을 각오하면서도 우리 당의 국방강화정책을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지지성원해준 전체 인민의 믿음과 열렬한 조국애가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낼수 없었을것들입니다.

저 무장장비들마다에는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우리 당을 따라서 국방건설의 길에서 천신만고를 헤쳐온 정녕 잊지 못할 수많은 사연들이 깃들어있으며 자기의 열정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 희생적으로 투쟁한 그들의 진한 피와 땀방울이 스며여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항상 우리 당의 그 어떤 요구와 결심도 무조건적으로 절대 지지하고 결사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국방력강화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무한한 충실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공화국의 건국력사에 일찌기 가져보지 못하였던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고 우리 인민의 오랜 숙망을 풀어주는 특출한 최선성과들을 이룩하는데 공헌한 국방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동지들과 전체 군수로동계급에게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전체 인민의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또한 전체 인민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번 전람회가 우리의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는 승리자들의 전람회, 국방부문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격려와 고무의 전람회,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더 빠르고 더 힘찬 전진발전을 추동하는 진취적인 전람회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동지들!
우리당 국방정책의 진수는 자기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이며 부단히 발전향상되는 강력한 방위력으로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억제하고 평화를 믿음직하게 흔들림없이 수호하는것입니다.

력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수난을 겪어왔으며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민족사의 교훈과 조선혁명의 요구와 특수성으로부터

국방을 강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국사로 되고있습니다.

자위력을 응당한 수준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외부의 군사적위협에 끌려다니며 강요당할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와 인민의 존재자체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은 동서고금의 세사리치입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군사기술과 무장장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군사작전양상과 지역마다 국가들의 안전환경은 변화되고있습니다.

지금 조선반도주변의 군사적긴장으로부터 우리 국가앞에 조성된 군사적위협성은 10년, 5년전 아니 3년전과도 또 다릅니다.

앞에서는 평화 그리고 협력과 변명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이 빈번히 벌여놓는 각이한 군사연습들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알수 있고 최근 들어 도가 넘을 정도로 로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현대화시도를 봐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환경이 변화될 레일을 쉽게 짐작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은 미국의 강력한 후원으로 스텔스함 동타격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방대한 각종 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며 자기 군대의 전투력을 갱신해보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미싸일지침을 개정한 이후 자체의 국방기술력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각이한 탄두개발, 사거리제고 등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미싸일능력향상을 비롯하여 잠수함전력강화, 전투기개발 등 다방면적인 공격용군사장비현대화시도에 전념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이같이 도가 넘치는 시도도 방치해두기 위험한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것은 그들의 군비현대화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태도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하는 남조선당국이 이제는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까지 빼앗으려고 심지어 우리의 상용무기시험까지도 무력도발이라니 위협이라느니,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느니 하는 딱지들을 잔뜩 붙여놓고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목소리를 술선 선창하느니 나서고있습니다.

이제는 남조선에서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진용술어》로 쓰고있습니다.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에 불법무도한 유엔결의를 내세워 속박의 족쇄를 채워놓고 자기들은 스스로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은 그 무슨 위협에 맞선다는 소위 정의로운 간판하에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는 남조선의 위선적인 태도와 미국의 암묵적인 비호는 북남쌍방간 감정정서를 계속 훼손시키고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무제한적인 위험한 군사력강화시도들은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균형을 파괴시키고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협을 더 키우고있습니다.

남조선은 우리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밑에 군사력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여러 계기에 숨김없이 드러냈으며 어김없이 명분으로는 우리의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한다는 구실을 내들었습니다.

우리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위협의 대상으로, 억제해야 할 상대로 규제한것 자체가 길로는 아닌척 해도 숨길수없이 뼈속깊이 체질화된 반공화국 적대심의 집중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이같은 파국적인 야심과 상대방에 대한 불공평을 조장하고 감정을 손상시키는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강도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것입니다.

그러나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끌고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남조선과 설전을 벌일 일도 없을것이며 그럴 리유도 없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남조선은 우리 무장력이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력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재삼 밝히지만 우리는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

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쟁억제력과 남조선이 말하는 대북억제력은 어휘와 뜻과 본질에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말했지만 하루빨리 남조선당국과 전반적인 남조선사회의 대조선관점이 북조선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낡고 뒤떨어진 근심고민과 몽상적인 사명감을 벗어놓고 과도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를 즉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맹정하고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문제로 되는 남조선의 과도한 군사적비만증과 과욕이 아니라도 미국의 조종밑에 지금 조선반도주변의 군사정치적인 환경변화는 많은 전망적인 위협을 배태하고있으며 우리가 더욱 강력한 실제로 변해야 할 절박성을 제기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수 있는 행동적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바보들만이 있는것이 아닐진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가 있다면 매우 궁금해집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있습니다.

명백한것은 조선반도지역의 정세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때문에 쉽게 해소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 미루어볼 때 지금 우리가 국방력강화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에 자만도취되어 발전의 길에서 잠시나마 발걸음이 뒤처지고 한숨돌려간다면 지역의 군사적균형이 날로 위태로워지고 우리 국가는 더욱 좋지 않은 안전불안과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정세하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키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시대적요구이고 우리들이 혁명과 미래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로 됩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소한 자만과 답보도 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들과 위협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릴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갖추는데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보유능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권리이고 총체적인 국책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위력이 국가존립의 뿌리이고 발전의 담보로 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야기시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렬한 행위들에 견결하고 단호한 자세로 맞설것이며 평화적인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있는 그 원인들을 차차 해소하고 없애버려 조선반도지역에 굳건한 평화가 깃들도록 도모하기 위함에 전력할 다할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대외적인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자위권포기는 아닙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 5개년계획기간 제2차 국방공업혁명을 수행하여 우리가 틀어쥔 군사기술적강세를 더욱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련한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기술적수단들의 개발생산을 더욱 가속화하는것을 기본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믿는것은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무조건적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기어이 창조해내고야마는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굴함없는 혁명정신과 특출한 애국심, 비상하고 총명한 두뇌와 재능이며 장기간의 고난속에서 역척같이 다져놓은 위력한 군수공업태도입니다.

첫단계의 국방공업혁명의 나날에 우리 당은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충실성과 실력, 매 단위를 인재를 위하여한몸을 서슴없이 내내고 결사분투하는것을 체질화한 미더운 혁명전사들이 있는 한 국방력강화의 첨단목표들을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을

굳히었습니다.

이러한 신심을 더 역세계 해주고 새 단계의 승리를 략관하게 해주는것은 당중앙이 구상하면 언제나와 같이 창의적인 방도로 당의 의도를 무조건 실천해내고야마는 창조형의 젊고 쟁쟁한 과학자대군이 있는것입니다.

이 젊은 세사들은 우리 국방공업부문의 현재와 전도를 든든히 떠받드는 역군이며 당과 국가의 큰 힘입니다.

또한 언제나와 같이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군수로동계급이 있습니다.

당은 우리 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위적인 국방력은 계속 변할것입니다.

우리 당의 굳건한 의지와 정확한 령도가 있고 당과 혁명에 무조건 충직한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의 정당한 애국위업수행에서는 더욱 빛나는 성과들이 쟁취될것이고 하여 더욱 확고하고 더욱 완비되고 더욱 강해진 전략적, 전쟁억제력이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게 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가 국방발전전람회를 크게 진행하는 진폭적인 이를 계기로 하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을 고무하고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려는데도 있지만 기본은 나라의 국방력발전을 더 힘있게 추동하자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의 방위력을 혁명발전단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족스럽게 키워온 영광스러운 국방공업의 력사를 돌아보면서 자부를 느끼는데만 그칠것이 아니라 반세기 넘게 피와 땀을 고여온 그 강인한 노력과 이룩해놓은 발전을 튼튼한 발판으로 삼고 그것을 디디고 더 높이 비약해 뛰어오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와 발전정도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에 토대하여 각 분야의 비약적발전을 구상, 설계하며 지금까지 축적된 우수한 경험들을 교환, 공유하고 앞으로 더 높은 수준에 더 빨리 올라서기 위한 방략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국방발전전략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백배천배 더 용기충천하여 국방발전에 기여해나가야 합니다.

동지들!
우리 당은 혁명의 요구와 정세형편을 동지들에게 그대로 다 터놓고있으며 동지들의 견실한 자세와 애국충정에서 커다란 힘을 얻고있습니다.

다시한번 곱씹어 강조하는바이지만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최종대정책이고 목표이며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동지들은 우리 국방공업부문이 쟁취한 거대한 성과에 비추어 자기 부문과 단위의 실태를 맹렬하게 돌이켜보고 당과 국가, 인민앞에 앞으로 어떤 실적을 내놓겠는가를 다시금 결심해야 할것이며 우리 국방공업이 더 발전할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경제적사정이 의연 어렵고 다른 부문들에서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시간을 다투는 중대한 과업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국방력강화의 중차대함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며 국가방위력의 우선적발전을 떠난 우리 혁명의 그 어떤 발전과 성과도 생각할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강력한 자위력이 없이 당과 정부의 대내외정책들의 성과적추진을 기대할수 없으며 나라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전체 인민들도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따라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을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고 물질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우선 강해지고보야 합니다.

우리모두 조국과 혁명, 인민앞에 다진 맹세를 잊지 말고 필승의 신심과 자신심을 가지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갑시다.

우리의 긍지스러운 군사력을 가까이 체험하는 오늘 이 행사에 오신것을 다시한번 환영합니다.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성대히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국방력강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어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열 마전에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참관하며 군사강국의 공민된 공지와 자부심으로 새차게 가슴 설레이고있다.

얼마나 강대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군사력인가. 공화국을 건드리는 원수에 대해서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어도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안길수 있는 미더운 화성포들, 목표물을 순간에 정확히 타격하는 여러 구경의 방사포들, 현대화된 땅크와 각종 전술미사일과 반항공무기체계, 현대전의 요구와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체질에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각종 저격무기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선의 국방과학과 무장장비들이 어떤 경지에, 얼마만한 높이에 이르렀는가를 때부로 절감하게 되었다. 군력이 약하면 땅국은 순간이라는 력사의 교훈을 빼어 새긴 이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 금지롭고 행복한 순간이 과연 언제 있었는가.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강국의 위대한 새시대를 펼쳐주시어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안아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는 절세의 위인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있는것이다.

같이 다쳐 이 땅의 평화를 스스로 지킬것을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력이 강해야 사회주의건설도 힘있게 내밀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통찰하시고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국방력강화의 길을 앞장에서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사격장에 나가시고 바다물에도 서슴없이 들어서시며 화려진지대로 나가시었다. 또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강행돌파하시며 조국수호의 역센 보검을 마련해주시려고 끝없는 헌신의 낮과 밤을 바치시었다. 그이의 이렇듯 끝없는 헌신과 로고속에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력사적대업이 이루어져 공화국인민들은 세세년년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

에서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수많은 개발하여 공화국의 군력을 날로 강화해나가고계신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년동안에만도 얼마나 많은 주체병기들이 대치를 박차고 날아올랐는가.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침략세력들에게 떨어버릴수 없는 고민거리를 주는 초대형방사포와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예측불가능하 자리길을 새기며 설정된 목표를 정밀타격하는 신형전술유도탄, 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린다면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 화성포들, 가장 무서운 멸적의 비수인 전략참수함의 탄도탄... 올해에도 새로 개발한 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반항공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철도기동미사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이 있었다. 정말이지 공화국의 방위력은

3년전, 5년전에 비해 더욱더 강해졌으며 그 비약적인 발전상은 나날이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진정 세계가 놀라고 감탄을 터치는 조선의 경이적인 군력은 민족자존은 공화국의 생명이고 우리 혁명의 근초석으로 되며 굽어죽고 얼어죽을 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억척불변의 의지로 사생결단의 힘찬 길을 헤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나라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해 마련 해주신 만년재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개막식에서 하신 뜻깊은 기념연설에서 이렇게 호소하시었다. 조국과 혁명, 인민앞에 다진 맹세를 잊지 말고 필승의 신심과 자신심을 가지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몸과 마음,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자. 천출명장을 모시어 주체조선의 군력은 더욱 비상히 강화될것이며 강력한 군력이 있어 이 땅에는 영원한 평화가 담보되고 공화국인민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확신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공화국인민들은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계가 우리러보를 위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과들을 날마다 창조해가고있다. 일러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 어느 단위로 할 것없이 울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사회주의협동전야들에서는 황금이사 설례에 풍요한 가을을 기약하고있다. 뿐만아니라 1만세대 살림집 건설전역을 비롯한 대건설전야들마다에서는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져 완공의 날을 앞당겨가고있으며 자연재해피해들에서는 피해의 흔적을 가리고 번듯한 새 마을들이 일떠서 인민의 행복 더욱 커지고있다. 진정 이 땅에 펼쳐진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인민의 존엄과 안녕, 행복을 위해 헌신의 낮과 밤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고계신다. 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제일 큰 종대사로 여기시고 그것을 하루빨리 가져주기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도 현지에 나가시어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름단계에 이행시켜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러 그이께서는 울해에만도 수많은 중요회의들을 소집하시어 훌륭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밝혀주시고 인민들에게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시었다. 또 시, 군들을 하루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묘술과 방도로 가르쳐주시고 상반기간 사업정형을 상세하

게 분석총화하시고 울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이렇듯 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이 땅에 하루빨리 꽃피워주시러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위대한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공화국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획기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설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단호한 결심과 철의 의지, 불같은 위대한신속에 국가방위력이 비상이 강화발전되었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맑고 푸른 하늘아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제승으로, 제힘으로 이어 사회주의강국을 안아오고 야말것이며 이 땅에서는 세세년년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져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희생적인 헌신으로 마친해주시는 불패의 군력

공화국은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이어 지속되는 절대 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속에

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이 조건과 환경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군력을 억척

강력한 자위력이 없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전진을 기대할수 없다. 오늘 공화국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어떤 침체나 담보도 모르고 전진해나갈수 있게 된것은 날로 강화되는 국방력이 믿음직하게 담보해주고있기때문이다.



천하무적의 군력으로 안아온 우리 국가제일주의의대

공화국에 펼쳐진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다름아닌 공화국의 국력과 대외적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공화국발전의 새로운 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인것이다. 실지 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고있다.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을 긍지높이 과시하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개막식소식에 접한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전체 일군들은 지금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초 대포와 함선을 끌고온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야 했던 우리 민족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위대한 국가의 한 성원이 되었다. 정말이지 공화국의 공민된 공지가 가슴에 차넘친다. 공화국의 국방력이 어떤 수준, 어떤 높이에 이르렀는가는 전람

회장에 전시된 각종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이 그대로 응변해주고 있다. 오늘의 가슴벅찬 현실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에게, 후대들에게 강대한 조선을 안겨주시려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생결단의 의지와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험천만한 새 무기개발시험장에 언제나 국방과학전사들과 함께 계시며 군력강화의 앞장에서 헤치신 그이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진정 천체적인 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 무비의 담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 지역과 세계의 평

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불가항력의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주시어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존엄높은 국가의 공민된 공지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사야말로 만고의 영웅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시이다. 지금 저만이 아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전체 일군들은 민족의 국력을 더욱 강화시켜주시고 우리모두에게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면서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맡은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유성

위대한 국가의 공민된 영예를 빛내여나가겠다

오늘의 성대한 전람회는 불패의 자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가는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와 령도력, 실천적행력을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하고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대규모형병식이 못지 않은 일대 국력시위로 된다고 긍지높이 선언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우렁우렁 하신 그 음성이다. 정말이지 우리 후대들의 머리우

에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을 펼쳐 믿음직한 주체병기들의 모습을 무심히 바라볼수 없고 위대한 우리 국가를 더욱 빛내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는 엄숙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에 끝까지 충직하는 길에서 교육자의 임무를 다할것이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쳐나가겠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박형성

그들처럼 이 땅에 진한 피와 땀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개막식에서 하신 기념연설과 우리 공화국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에 접하고보니 끓어오르는 격정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이지 위대한 국가의 공민이라는 무한한 공지와 자부심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젖어 드는것을 어쩔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때는 무심히 바라보던 저 하늘도 더 푸르

게만 보이고 황금이사 물결치는 이 대지도 더없이 아름답고 소중하게만 느껴진다. 지난날 국력이 약해 땅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민족을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대한 민족으로 되게 하여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진정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시이다. 애국을 말로 하는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기념연설에서 전체 인민들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따라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을 최대의 애국으로 간주하고 물질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하시었다. 나만이 아닌 우리 작업반의 모든 성원들은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해 진한 피와 땀을 바친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나라의 활동을 가득 채우기 위해 힘껏 일해가겠다. 강남군 당국협동농장 작업반장 리충국

우리는 더욱 강대해지리라

김태봉

가슴터질듯 높뛰는 벽찬 격정이여 심장의 피 끓이는 열화같은 희열이여 얼마나 장하고 부드럽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것인가 오,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금방 대치를 박차고 우주로 솟구칠듯 통째로 일으킨 화성포의 강한 모습 역세게 추켜든 강철포신들 오, 이것이 조선의 힘 평화수호의 믿음직한 재부이거니 바라볼수록 가슴 공지로 부풀고 눈시울 뜨거이 젖어드나니 위대한 평강과 조화, 달달음치운 국방력강화의 험난한 길 우리 왜 기어이 가야만 했던가

매없이 벌어지는 저 남녘땅을 보라 뻔뻔스레 《도발》과 《위협》을 떠들며 외세에 추종하여 군비증강에 질주하는 안락이 다른 무례한들물 우리 결단코 용납치 않으리 자기의것 지키려는 우리의 당위적권리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하는 궤변을 동족을 해치려는 저들의 대결책동 《안보》와 《역지》로 도배하는 비렬한 행태를 명백히 말해두노라 우리의 힘은 어제도 오늘도 자위의 힘! 강자의 발밑에 짓눌리는 약자의 수치 그것이 저래의 운명이지 않게 하기 위해 불의를 짓부시러 다진 정의의 힘! 국방력강화 그걸로 더 높이 비약하리라

그렇다 우리의 힘은 무진막강하다 치욕스러운 동족상쟁의 력사 끝장내고 8천만겨레의 평화번영을 위해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강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오, 우리는 더욱 강대해지리라

웃으며 가는 사람들

공화국은 어떻게? 이것이 세계가 품는 조선에 대한 호기심이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치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사상으로 어느 나라나 다 침체에 빠져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대조를 이루는 공화국이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힘으로 모든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창조와 건설을 다그치느니라 몹시도 바쁘고 바쁜 날과 날을 보내고있다. 세계가 공화국의 이 현실을 좀더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면 놀라운것을 발견할수 있다. 모두가 웃는것이다. 그 어떤 비관도 주저도 모르고 누구나 웃으며 생활하고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이루어내는 이 대모는 한층 고조된 인민의 웃음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에 접하였기때문이다. 지금 대평건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부문에서 송신, 송화지구의 살림집건설을 올해중으로 완공하고 다음단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련속적으로 진입하여 또 하나의 현대적인 구역과 거리를 일떠세우며 새로운 건축형식을 적극 도입하면서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또 한번 솟구쳐오르는 새 힘으로, 환희로 가는 곳마다 들끓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시고 하신 일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한 일이며 그것은 코든작든 언제나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되어 인민들에게 안겨지지 않았는가. 이런 확신이 언제 한번 흔들린적 없는 이 나라 인민들일진대 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송신, 송화지구의 전변을 보면서 기쁨속에 날과 날을 보내던 이들이 머지않아 새로운 1만세대 건설장을 불수 있었으니 왜 행복의 웃음, 만족의 웃음이 절로 나지 않겠는가. 어찌 그뿐인가. 지금 대평지구에도 또 하나의

건설전역이 펼쳐져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대평지구는 어떤 땅인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 바로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이 지적에 있는 곳이다. 언제나 수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이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만경대까마이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게 되니 그 기쁨은 실로 류대론것이다. 앞으로 이 지구도 완전히 모습을 일변할것이다. 평양시만이 아닌 광산과 농촌, 나라의 곳곳에서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새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어 온 나라에 인민의 웃음이 차넘치고있다. 지금은 칠고마비의 계절, 협동밭마다 황금바다 설레이고 산은 산마다 알찬 열매 주렁거린 이 땅에 행복의 레일을 확산하는 인민의 웃음이 풍요함을 더해준다. 본사기자 리연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자위-2021》개막식에서 하신 기념연설과 공화국 국방발전전람회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에 접한 각계층의 반향

《문명국으로서의 뚜렷한 발전모습을 보이고있다》

— 남조선 언론들이 지적 —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공화국 뚜렷이 보여주고있다고 보도하고 이 문명국가로서의 발전모습을 있다.

국가행사를 문명국가의 체모에 맞게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총비서께서 지난 9월 8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해 차린 연회만 보아도 북이 국가행사를 문명국가의 체모에 맞게 특색있게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정원잔디밭에 꽃과 삼팔술잔, 빵 등이 놓인 원탁을 놓고 환색양복에 검은색비백타이를 맨 남자정대원들이 탁을 오가며 술을 부어주는 모습과 본부청사의 환벽과 등근 기둥을 비추는 조명 등이 조화를 이룬것이 특색있으면서도 수준이 높은 연회라는것이 알린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공화국창건 73돐경축 열병식행사때 락하산병들이 공화국기를 하늘에서부터 휘날리며 내려오는 모습과 밤하늘을 배경으로 레드등을 단 무인기들이 다양한 색으로 대형국기를 형성하고 화려한 조명장식을 펼쳐보이는 모습 등은 지난 시기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였다.

도시와 건축물을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남조선언론들은 북에서 도시와 건축물의 내외부장식 등을 세계적수준에 맞게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꾸미고있다고 전하였다. 새로 건설된 삼지연시만 보아도 낮은 층의 삼각지붕주택들이 바늘없나뭇잎속에 아담하게 들어선고 지붕은 주황색이나 분홍색으로, 벽면은 하얀색벽돌과 타일로 골게 단장하였을뿐 아니라 주택들사이로 조성된 야외정원들과 실내체육시설, 가로등과 주택들사이로 뻗어있는 차도로 등은 아늑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건물들의 실내장식도 벽과 바닥재로, 가구배치와 조명설치들이 다채롭고 화려하며 세련되게 꾸미였을뿐 아니라 안전성과 편리성을 기본으로 하고있는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이 세계적수준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감자재의 다양화, 다색화, 다기능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김정은시대에 변모되고있다. 북이 도시형성과 건축물의 내외부장식에서 평면에서 입체로, 단색에서 다색으로 변모되는 등 선진국수준으로 발전하고있다고 하였다.

산업기술, 상표도안에서 새로운 변화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총비서의 지도의 손길에 북에서 산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은총비서께서 《민물레》를 비롯한 일부 상표도안들을 직접 지도하시였을뿐 아니라 그 이룩까지 지어주실 정도로 커다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은 상표도안들에서 목란과 해바라기, 철쭉, 소나무 등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많이 리용하고있다. 민족의 넋과 얼이 깃들여있는 상징적인 나무이며 국수인



아름다운 려명거리의 불빛



다양한 산업기술도안들

소나무는 북에서 학생들의 책가방상표로 되고있다. 《소나무》배낭식가방은 김정은총비서께서 직접도안가, 제작자가 되어 450여건에 달하는 상표도안들을 직접 보아주고 지도해주시신 제품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주요기계마다 체육분야의 상표도안들도 많이 만들어 공개하고있다. 체육단들의 마크와 경기복, 체육기자상표들이 련이어 개발되면서 자기식의 상표마크를 가진 체육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였다. 내용을 하나의 짧은 단편영화처럼 구성하여 내보내고 취재자가 이를 직접 소개하는 형식은 매우 특색있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은 꾸준히 방송의 양식을 다양화하고있다. 방송프로그램을 세계적수준에 맞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있다고 전하였다. 특히 지난 시기와 달리 미담의



삼지연시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공화국의 대학생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밝혀주시면서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올려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였다. 장학금,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해방직후에 벌써 가난한 집 어린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후시기에는 전반적초등무교육과 전반적중등무교육을 무료교육으로 보장하였다. 1959년부터는 공화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철저히 무료교육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종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있다. 이렇듯 우월한 교육제도에서 온 한결 안고 배운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활짝 꽃피우는것도 고마운데 이번엔 또다시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올려줄데 대한 문제가 언급되었으니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

장학금과 장학금과

장학금을 받으며 나라의 인재로 자라나는 공화국의 대학생들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 있다. 날로 늘어나는 등록금으로 하여 절망이 되고있다. 대학생들은 대학은 돈방석, 집은 가시방석, 빚쟁이로 시작한 청춘, 늘어나는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남조선의 대학생들

독자문답 제미동포 리연자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는 재해를 입어도 불행을 모른다는것이 사실인가?

단층살림집들이 새로 건설되어 인민들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렸다. 2016년 함북도북부해북구전투과정을 통해서도 국가가 인민들에게 안겨준 배려가 얼마나 크고 뜨거웠는지 알게 될 수 있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입었던 함북도 백수읍개지구에 3 000여동에 달하는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이 짧은 기간에 완공되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은 한순간에 방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조선로동당의 중대결단에 의해 200일전투의 수 없는 정신, 육체적능력의 한계로부터 외부적응력과 보호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정에 주리고 병마에 시달리고 돌봐준다는 《북지시설》들도 이들과는 정반대로 학대하고 폭력의 란무장, 부정부패의 서식장으로 되고있는 형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의 연령성리특성에 맞는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꾸준한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는 과정에 교육교양사업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자랄만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고 한다. 지능교육수준을 개선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어린이교육지원 프로그램개발사업이 그 대표적실례라고 한다. 온 나라에 교육혁명을 일으켜나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학령전어린이들의 지능개발에서 혁신을 가져오자면 종전의 구태연한 교육교양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한 착상이었다. 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은 전문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어린이들이 알고싶어하는 동물들이 실제 살아움직일뿐 아니라 그 개별적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할수 있는 어린이교육지원프로그램 《신비경》(동물원)을 개발완성하였다. 범이 움직이면서 울음소리를 내고 걷거나 뛰는 모양, 동작, 성성이 가늠할수 있는 특이적인 모습 등 100여종의 동물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는 《신비경》은 교육교양사업에 도입되어 어린이들이 사물현상을 관찰하고 대비분석하는 능력을 훨씬 높여주고있다고 한다. 유치원에서는 식물, 동물, 자연현상으로부터 도덕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교재에 있는 모든 그림들을 움직임 속에서 생동하게 보여주기 위한 개발사업도 꾸준히 벌리고있다고 원장선생은 설명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모두가 음악전공실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활발히 벌리고있고 전국의 유치원 음악반들의 교수준비와 교수활동을 일원화, 규범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유치원이 안팎으로 멋쟁이인데다가 교육수준도 높으니 이런 곳에서 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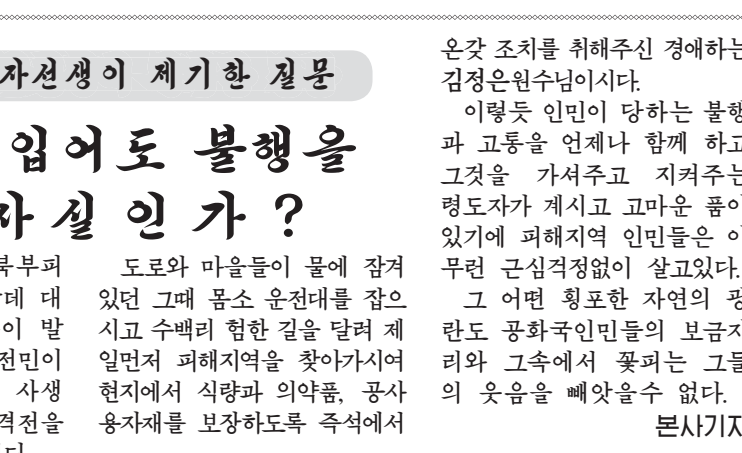
는 재능을 가진 신동들이 수없이 자라나는것은 너무도 옹당한 귀결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심정은 나뿐이 아닌 유치원참관한 많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감상록에 남긴 아래의 반영들이 그것을 실증해주었다. 《나는 위대하고 현명하고 다심하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정상유치원의 모든 어린이들이 앞날의 조선의 훌륭한 미래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경상유치원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고 현연할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진짜 배우같다!》 《이 유치원을 졸업한 어린이들이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 전세계에 조선의 영예를 빛내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창창한 미래로 자라나는 정상유치원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의 밝은 앞날을 확신할수 있었다. 이런 뛰어난 신동, 인재들은 조국의 그 어디서나 볼수 있었다. 조국방문의 날날 나는 신문과 TV를 통해 전국유치원 어린이들의 공연과 전국소묘추진회에서 여러번 특등을 하였다. 나는 소학교 학생의 그림출품과 전국어린이바둑경기에서 패권을 쥔 꼬마바둑신동들의 경기장면,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낼 꿈을 안고 추수기술을 열심히 배우가는 나 어린 추수인재들의 대견한 모습도 볼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천성과 재능의 싹을 키우고 적극 개발시켜주는 국가적인 관심과 정구적인 교육체계,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어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려는 신동들이 자라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돈 한푼 안들이고 꿈과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는 어린이들, 이런 뛰어난 신동, 인재들이 자라나 가꾸고 빛낼 조국의 미래는 참으로 아름답고 환희로울것이다.

재중동포 김영란

은갖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입니다. 이렇듯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언제나 함께 하고 그것을 가세주고 지켜주는 령도자가 계시고 고마운 품이 있기에 피해지역 인민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희소망 자원의 광란도 공화국인민들의 보금자리와 그속에서 꽃피는 그들의 웃음을 빼앗아올수 없다. 본사기자



재해지역에서 새집들이 진행 (2020년 11월)

수익축출로 특색있게 솟아난 평양양로원을 비롯하여 도처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를마다에서는 우리 세월 좋아, 로동당이 좋아라고 터치는 년로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얼마전 평양양로원의 보양생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롤러가는 하루하루가 마치 꿈을 꾸는것만 같다. 이런 궁궐같은 보금자리에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우리야말로 세상도 몰도 없는 만복의 주인공들이다.》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를 부르며 회고와 랑만에 넘쳐 생활하는 년로자들이 터치는 진정한 목소리. 《인생의 로년기에도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고마운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것은 이 땅 그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년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장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흥범식

세월이야 가보라지

많은 나라들에서 년로자라는 말이 좌절과 불행, 천대와 멸시의 대명사로 되고있을 때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이 행복과 존경의 대명사로 자랑스럽게 불리우며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다. 세월이야 가보라지

존경과 공대의 대명사-년로자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이 요구와 능력에 따라 사회생활에 참가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하고있으며 활력에 넘쳐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국가적인 관심과 배려속에 수많은 년로자들이 젊은이들과 어울려 최첨단과학기술발명과 인제육성, 후대교육과 향토관리 등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육체는 늙어도 생의 마

사람이 사느라면 누구나 로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면 어쩔 수 없는 정신, 육체적능력의 한계로부터 외부적응력과 보호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오늘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로인들이 《극심한 4중고》(로인고 인한 고통, 빈곤으로 인한 고통, 자녀들과의 관계단절로 인한 고통,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무료함에 의한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있다. 남조선에서 로인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남조선잡지 《한겨레21》은 남조선에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던 전통은 사라지고 가난한 로인들이 생계를 위해 로동시장 밑바닥을 전전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남조선에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있는 65살 이상의 로인들이 악성전염병사태와 경제위기심화로 자식들과 사회로부터 더욱 버림을 받고 고독한 생활에 시달리고있다고 한다. 무의무탁로인들과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로인들을

원이다. 하여 남조선에서 로인사실물은 10만명당 53.3명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인국들 가운데서 1위를 차지하고있으며 적지 않은 로인들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이 세상에 로인들을 위한 나라 없다.》 이것은 남조선은 물론 세계 도처의 년로자들속에서 터져 나오는 절망의 탄식이고 울분에 찬 절규이다.

과학기술로 비약의 활로를 열어 나가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받아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과학기술영역을 더욱 세계에 일으켜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기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때 대한 강령적인 지침을 받아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심정은 남다른데 어떻습니까?

최치명: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모든 부분, 모든 분

◇ 최치명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과 나눈 대담 ◇

아에 철저히 구현하며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키워 그들이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국공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우리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인 과학기술의 힘을 강화하고 비약적인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해 백배로 분

발분투하고있다.

기자: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한다.

최치명: 위원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성으로 등록된 연구소들과 현실에서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이를 위해 새기술개발 및 도입과제를 정하고 각 부문연구원 및 연구소, 공장, 기업소들에 시달하여 집행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촉매부품 연구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완비하며 농업연구기관들을 첨단 과학연구기지로 꾸리고 국가적인 분석중심들에 분석 및

측정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있다.

교육, 과학연구기관들의 과학연구사업에서 연구종자, 연구과제를 바로 정하도록 하고 경제실현에서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창조적두뇌를 키워주기 위한 과학기술정보사업을 개선하고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탄탄히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켜나가고있다.

과학기술발전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



한 문제이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양양된 열의가 큰 은을 내도록 하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해 나가겠다.



감나무 고장의 가을 풍경

천고마비의 계절에 들어선 요즘 가는 곳마다 무리익은 이채로운 감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특히 감나무가 많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안변군 천삼리에 가면 어딜 가나 감나무열매들로 뒤덮인 마을들을 볼수 있다. 올해에도 이 고장에서는 집집마다 붉은 감들이 많이도 달렸다.

천삼리에 사는 김철남가정에서도 집주변에 20여그루의 감나무를 심고 가꾸고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붉은 감들을 바라보는 집주인들의 모습이 감나무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집주인인 김철남은 《나무 한그루당 최고 150kg정도의

감이 열려 해마다 감을 2이상 따곤 했는데 올해에는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3은 넘을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감나무는 한번 심으면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많은 수확을 거둘수 있다. 감은 당분과 단백질, 비타민 등이 많기때문에 식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감은 그 저 먹기도 하고 껍질을 만들기도 하며 껍질은 말려워 감차를 만든다. 땅에 떨어진 감은 단지에 사탕가루와 적당한 비율로 넣어 3개월정도 두면 기관차전식에 좋은 감술이 된다. 지금 우리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 집처럼 많은 감나무를 심고있다. ...

풍산개는 조선개의 고유한 특성을 다 가지고있는 조선의 토종개로서 우리 민족의 기상을 그대로 닮았다고 할수 있다.

풍산개는 매우 명리하고 평소에는 성질이 온순한 개이며 자기를 길러주는 주인을 잘 따르지만 적수에 대하여서는 맹수와 같이 사납다.

풍산개는 서양개에 비하여 몸집은 작지만 대단히 날래고 이악하며 그 어떤 맹수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개들은 싸울때면 보통 적수의 목등을 물어뜯곤 하지만 풍산개는 정면공격으로 단숨에 적수의 숨통을 물어제끼는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불의를 미워하고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며 자기를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

조선의 국가 상징 풍산개

는 무자비한 조선민족의 슬기와 용감성 그대로라고 할수 있다.

또한 긴밀한 협동으로 크고 사나운 짐승도 능히 감당해내는 풍산개의 기질에는 서로 돕고 위해주며 단결력이 강한 우리 민족의 우수한 특성이 비껴있다.

풍산개는 추위에 잘 견디고 생활력이 강하며 특히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대단히 높다. 먹성이 좋

으며 거친 어려운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것으로 하여 어디서나 기를수 있는 우월한 점을 가지고있다.

풍산개는 수천년세월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 적극 리용되어왔다. 경계심이 강한 풍산개는 감시를 잘하고 집을 잘 지킬뿐 아니라 사냥물을 쫓거나 제압하는데서 참매와 함께 없어서는 안될 기본수단이었다.

여러 지방에서 자기 주인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풍산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있는데 과거 풍산일대 반일의병부대들에서 싸움과 보초, 사냥에 풍산개들을 많이 리용하면서부터 그 용맹성과 이악한 기질이 세상에 소문나고 더욱 유명해졌다.

본사기자



풍산개는 추위에 잘 견디고 생활력이 강하며 특히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대단히 높다. 먹성이 좋으며 거친 어려운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것으로 하여 어디서나 기를수 있는 우월한 점을 가지고있다.

다. 그는 알았다. 대장의 호소를 제일 앞장에서 실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인 줄을...

노술이와 필도는 한고향친구로서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그림자마냥 서로 붙어다니는 사이였다.

노술이의 진지한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난 필도는 《도리께가 나무로 되어 약해서 탈이지. 든든하지만 하다면야 왜놈들을 휘둘러 쳐서 많이 잡는데서야 그걸 당할 병장기가 없지. 우리네 농군들이야 도리께질로 잔병이 끊었으니 그걸 다루는데선 막힐게 없고, 우리 농군들의 도리께질솜씨에 비기면 의병들의 장칼질은 한참 서툴러... 그런데 자네가 날 찾아와 도리께소리를 꺼내는데 자네 부친께서 왜놈친 사실을 본보기로 삼은 모양인데...》

충분히 그럴수 있지.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보게. 부친께서 그때 왜놈대리리를 면바로 때리지 못하니 어깨나 허리쯤 찢다 못 어쩔면 했을가 하니 말이네.》 하고 미려한 의문으로 말끝을 맺었다.

《?!》

노술이는 말문이 막혔다. 필도의 우려는 괜한것이 아니었다. 그때 정말 아버지의 도리께가 왜놈의 팔뚝을 면바로 쳤으니 마땅이지 어깨나 허리쯤 찢더라면 높은 죽지 않고 반격을 가했을것이었다.

그러니 도리께가 마땅히 병

사화

《쇠도리깨다!》 (3)

글 리빈, 그림 김윤일

아버지는 환갑을 넘긴 늙은이일뿐 아니라 왜재은커녕 다른 사람들과도 싸움이란 전혀 모르는 순박한 농사꾼일따름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날이나 털어내는 농쟁기로 적과 싸울 용단을 내렸단 말인가. 싸움마당에 벌써 열변이나 튀어들었던 나도 생각조차 못할 일이거늘... 하기는 병아리를 거느린 엄지닭이 독수리에게 달려든단 말인가!

현노술이는 이 마당에서 부모의 은공이 얼마나 큰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새삼스럽게 절감하였다.

하여 그는 맨땅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앞에 엎드렸다. 둘러서있던 마을사람들은 좀처럼 일어설줄 모르는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날 밤이었다.

현노술이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잠간이나 눈을 좀 붙이려고 밀짚베개위에 드러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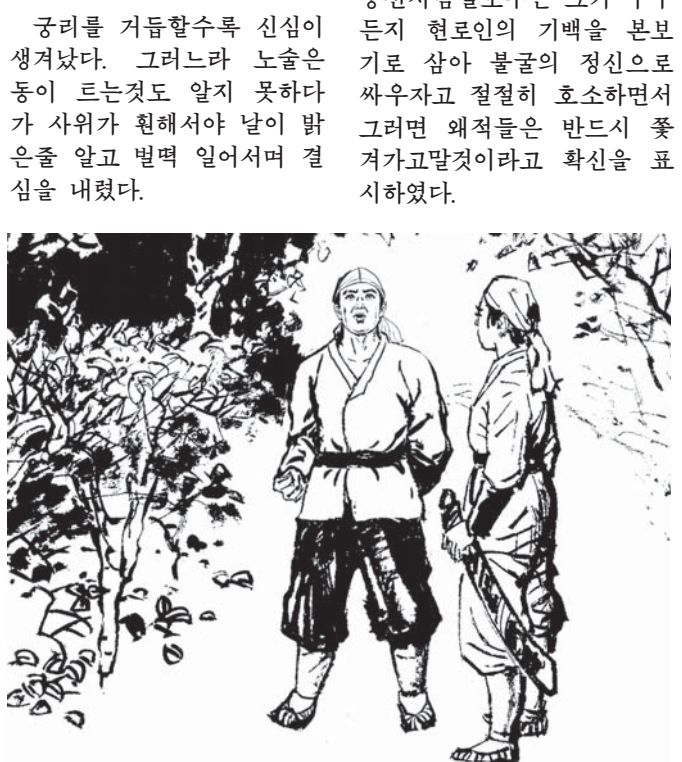
도리께를 틀어잡고 농들에게 달려드는 아버지의 성난 범같은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안겨들고 《도리께무라 두 왜놈을 맞아치니 가족이 살아나구 밀이 구원됐구

만!》, 《도리께에 힘이 있다. 힘이!》라고 하던 이웃들의 경탄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떠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휘둘러치는 병장기가 꼭 필요하다. 아버님이 도리께를 휘둘러 적을 잡은것은 사실이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군들이 지금 쓰는 도리께를 그대로 싸움마당에서 병장기로 쓸수야 없지 않잖나. 아버지의 도리께는 원수 한눈을 잡고는 부러져나갔다. 병장기는 결코 이해서 안된다. 하지만 어쨌든 적을 잡은 엄연한 사실은 그것을 든든하게 교체할것만 한다면 얼마든지 병장기가 될수 있다는 단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떠날줄 모르면 줄을 끊어버리는것이였다.

이러한 생각과정은 농군의 병들모두가 도리께명수들이라는 현실과 이어지면서 크게 고무하였다.

(도리께명수. 이것이 큰 밀친이다. 이 밀친이 없이는 도리께를 아무리 고쳐놓아도 소용이 없다. 우리에겐 이런 밀친이 있으니 도리께가 병장기로 개조되지만 하면 당장 큰 은을 벌수 있다!)



《필도와 의논하자.》

홍분한 그가 아침밥생각도 잊은채 대문밖을 막 나서려는데 뜻밖에도 의병대장 김민수가 뜻밖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대장은 그에게 《도리께로 왜놈을 잡은 자네의 부친께 인사를 드리러 오는 길일세.》하고 찾아온 목적을 밝

노술이는 대장이 떠날때 울리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든보이며 아울러 아버지의 그 일을 어떻게든 높이 사주는 대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필도를 찾아 걸음을 다그치는 노술이의 귀에는 대장의 호소가 끊임없이 울려왔

민족 요리

추어탕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리용하여 만든 탕이다.

미꾸라지는 로화방지, 독풀이, 간염,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치료에 좋으며 칼슘부족으로 인한 질병치료에서도 효과가 높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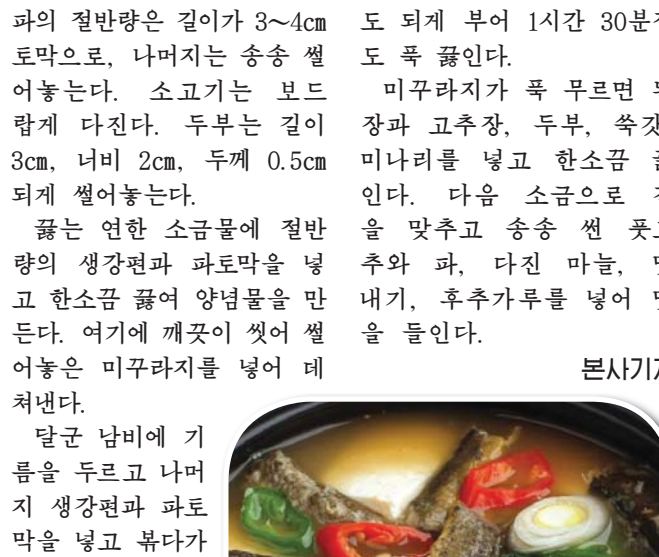
미꾸라지 150g일 때 소고기 50g, 두부 40g, 미나리 20g, 콩고추 30g, 숙각 20g, 고추장 10g, 콩된장 15g, 소금 20g, 생강 5g, 기름 15g, 파 10g, 마늘 3g, 후추가루 0.2g, 맛내기 0.2g, 로리용술 10g을 준비한다.

생강은 얇은 편으로 썰고

파의 절반량은 길이가 3~4cm 토막으로, 나머지는 송송 썰어 놓는다. 소고기는 보드랍게 다진다. 두부는 길이 3cm, 너비 2cm, 두께 0.5cm 되게 썰어놓는다.

끓는 연한 소금물에 절반량의 생강편과 파토막을 넣고 한소끔 끓여 양념물을 만든다. 여기에 깨갯이 씻어낸 미꾸라지를 넣어 데쳐낸다.

달군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나머지 생강편과 파토막을 넣고 볶다가 향기가 나면 다진 소고기를 두고 볶는다. 여기에 미꾸라지를 넣고 같이 볶다가 술을 약간 치고 물을 미꾸라지의 3배정



파의 절반량은 길이가 3~4cm 토막으로, 나머지는 송송 썰어 놓는다. 소고기는 보드랍게 다진다. 두부는 길이 3cm, 너비 2cm, 두께 0.5cm 되게 썰어놓는다.

어깨 그리고 밀로 내려오면서 훌쩍해진 몸체가 서로 잘 조화되어 매우 유연한 형태미를 보여주고있으며 경쾌하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항아리의 몸체에는 청화로 한마리의 룡이 여의주를 낚아올린 목과 쪽 벌어진 어깨 그리고 밀로 내려오면서 훌쩍해진 몸체가 서로 잘 조화되어 매우 유연한 형태미를 보여주고있으며 경쾌하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항아리의 몸체에는 청화로 한마리의 룡이 여의주를 낚아올린 목과 쪽 벌어진 어깨 그리고 밀로 내려오면서 훌쩍해진 몸체가 서로 잘 조화되어 매우 유연한 형태미를 보여주고있으며 경쾌하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항아리의 몸체에는 청화로 한마리의 룡이 여의주를 낚아올린 목과 쪽 벌어진 어깨 그리고 밀로 내려오면서 훌쩍해진 몸체가 서로 잘 조화되어 매우 유연한 형태미를 보여주고있으며 경쾌하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청화백자 룡구름 무늬 항아리

청화로 룡과 구름을 장식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회차기항아리이다.

높이 65.1cm, 아구리직경 17cm, 밀직경 7.5cm이다.

이 자기는 뚜껑이 있는 푸른무늬항아리로서 곧추 뻗아올린 목과 쪽 벌어진 어깨 그리고 밀로 내려오면서 훌쩍해진 몸체가 서로 잘 조화되어 매우 유연한 형태미를 보여주고있으며 경쾌하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항아리의 몸체에는 청화로 한마리의 룡이 여의주를 낚아올린 목과 쪽 벌어진 어깨 그리고 밀로 내려오면서 훌쩍해진 몸체가 서로 잘 조화되어 매우 유연한 형태미를 보여주고있으며 경쾌하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항아리의 몸체에는 청화로 한마리의 룡이 여의주를 낚아올린 목과 쪽 벌어진 어깨 그리고 밀로 내려오면서 훌쩍해진 몸체가 서로 잘 조화되어 매우 유연한 형태미를 보여주고있으며 경쾌하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이 유물은 청화백자 가운데서 그 형태와 빛깔, 장식기법 등이 생동하고 아름다운 우수한 작품중의 하나이다.